

휴(休)테크는 노(老)테크

글_ 김정은_ 명지대 교수

무릇 남들 보기에 좋은 것 혹은 남들이 그럴듯하게 인정해주는 것을 하는 것은 진정한 재미와 관계가 없다. 진정한 재미는 스스로 혼자 해도 힘들지 않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찾아온다. 그것이 특정 음식 맛보기 좋고, 음식 만듦기여도 좋다. 모형 자동차 조립도 좋고, 오토바이 타기도 좋다.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것의 리스트가 작성되면 다음 순서로 '동호회'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이란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행복이란 카테고리 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고진감래(苦盡甘來) 신념에 충실한 기성세대들은 재미나 행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나 행복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는 이런 신념이 검증받을 시기가 온 듯하다. 젊은 시절 열심히 고생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에게 낙이 찾아왔는가?

재미가 없으면 휴식도 없다

이들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물거리거나,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 독서나 음악감상이다. 취미가 독서라고 해도 아침에 읽는 신문과 주간지정도가 고작이고, 음악감상이라고 해도 출퇴근시간에 차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는 정도인데도 말이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낙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년들은 즐거움 대신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며 산다. 정말 이 길의 끝에 행복이 있기는 한 걸까?

강연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이 시대의 중년들로부터 '이제는 좀 정말로 재미있게 살고 싶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자주 접한다. 그럴 때면 필자는 이들에게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나이라는 편견과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재미는 스스로 혼자 해도 힘들지 않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찾

을 수 있다. 그것이 특정 음식 맛보기도 좋고, 음식 만듦기여도 좋다. 모형 자동차 조립도 좋고, 오토바이 타기도 좋다. 일단 리스트가 작성되면 다음 순서로 '동호회'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재미와 일의 행복한 만남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수없이 많지만, 나이나 남들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재미의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온라인에서 쌓아온 친분을 다지는 계기이면서 동시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자, 재미에는 남녀와 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단순히 동지를 얻었다는 심리적 위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전업으로 전환했을 때, 자신의 잠재적 소비자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주변에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정년퇴임 후에 삼겹살 집의 사장님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풍족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재미있는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은 늘 재미있게 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노후 준비는 이룰수록 좋다고 한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비단 연금이나 보험만이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노(老)테크는 휴(休)테크라고 주장한다면 너무 과장일까? 